

얼굴로 기억한 우리 시대의 초상...“산 자여 따르라”



‘민족 시인 김남주의 상념’

수천 개의 얼굴이 한 공간에 모였다. 이름난 인물과 이름 없이 살아온 평범한 시민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기억을 담은 박종석 화백의 ‘만인화’(萬人畵)가 관람객과 만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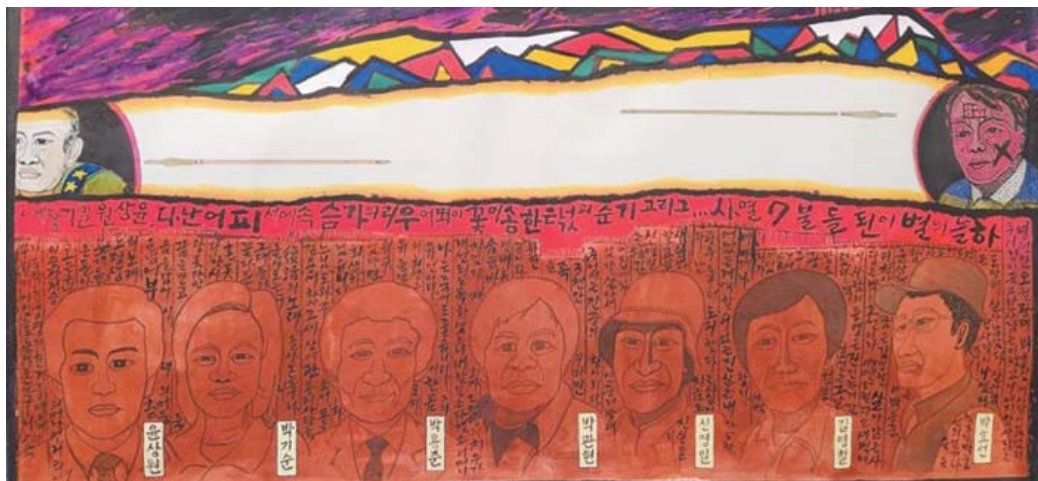
은암미술관은 오는 7월2일까지 미술관 1·2층 전시실에서 2026 기획초대전 ‘만인화전-산 자여 따르라’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석주 박종석 화백이 오랜 시간이 아온 만인화 작업을 조명하는 자리다.

작가는 거리와 카페, 일상에서 마주한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수묵담채로 기록해왔다. 그의 작업은 인물의 외형을 재현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쉽게 소비되고 잊히는 존재들에게 기억의 자리를 내어주는 예술적 실천으로 평가받는다.

전시에는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포착된 수많은 얼굴들이 등장한다. 작가는 평범한 시민들의 삶과 시대의 흔적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 속에 담아내며 개인의 기억을

은암미술관, 박종석 기획초대전 ‘만인화전-산 자여 따르라’...내달 2일까지



‘7월 7일사’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사라져간 님들에 대한 헌화 잊혀져 가는 ‘기억의 소환’...다양한 얼굴 통해 존재 의미 조망

공통의 기록으로 확장해 왔다.

특히 전시 포스터에 사용된 작품은 민주화운동가이자 소설가인 송기숙 교수를 그린 만인화다. 이는 이름 있는 인물과 이름 없는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를 시대의 주인공으로 기록해 온 작가의 작업 세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정신도 함께 되새긴다.

작품 ‘만인보’에는 윤상원 열사, 박관현 열사, 문재학 열사 등 5·18 민주화운동의 인물들이 등장한다.

작가는 “1980년 5월의 희생을 기억하며 광주 정신이 평범한 시민들로부터 시작됐음을 되새기고, 민초들의 의기와 생명력이 먼 미래까지 이



‘새벽별’

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밝혔다.

전시를 기획한 조민영 학예실장은 “박종석 화백의 만인화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워져 가던 존재들을 다시 불러내는 거대한 아카이브”라며 “망각과 소비에 맞서 이름 없는 삶과 개인의 서사를 기억하려는 예술적 실천”이라고 설명했다.

전시와 연계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 ‘응시살롱’도 운영된다. 지난 5월 열린 프로그램에는 박종석 화백과 몽골 작가 엘마가 참여해 시민들이 서로를 바라보고 대화하며 즉석에서 초상을 그리

는 시간을 가졌다.

오는 19·28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시민 초상 드로잉 라이브’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관람객들이 작품 감상을 넘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예술 경험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채종기 은암미술관장은 “이번 전시는 역사적 인물부터 평범한 민초들까지 다양한 얼굴을 통해 존재의 의미를 다시 바라보는 자리”라며 “누군가의 존재가 우리 모두의 역사 속에 다시 호명되는 순간을 함께 만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예술로 잇는 문화공동체 ‘광산미술가협회’ 창립

20일까지 송정작은미술관서 창립전

지역 미술인과 주민을 잇는 새로운 문화예술 플랫폼이 광산구에서 첫발을 뗐다.

광산미술가협회는 지난 11일 송정작은미술관에서 창립전을 열고 지역 문화공동체 조성을 위한 비전을 공유했다.

‘예술로 소통하고 문화로 하나되는 광산’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창립전은 지역 미술인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동시에 예술을 매개로 한 지역 공동체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사진)

정혜숙 사회자의 진행으로 열린 개막식은 아코디언 식전 공연으로 시작해 테이프 커팅식과 창립 경과보고 순으로 이어졌다.

남정숙 광산미술가협회장은 인사말에서 “광산미술가협회는 지역 미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설립된 단체”라며 “예술을 통해 주민과 깊이 소



통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문화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병규 광산구청장을 비롯해 문화예술계 관계자, 박균택·임문영 국회의원, 이경수 광주매일신문 부회장 등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후 케이크 커팅식과 기념촬영이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전시를 둘러보며 작가들의 작품 설명을 듣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산미술가협회는 이번 창립을 계기로 ▲지역 예술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속 가능한 창작 기반 마련 ▲다양한 전시와 활동을 통한 문화예술 저변 확대 ▲주민 참여형 전시문화 조성 ▲예술을 통한 지역 화합과 문화도시 광산 실현 등 4대 비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창립전은 오는 20일까지 광산구 송정작은미술관에서 열린다. /이옥근 기자

전통 족자에 펼쳐진 수묵 추상의 실험

수하갤러리, 28일까지 김대원 기획전

전통 족자의 형식 안에 수묵 추상의 자유로운 흐름을 담아낸 전시가 광주에서 열리고 있다.

광주 동명동 수하갤러리는 오는 28일까지 ‘지암(芝菴) 김대원: 수묵의 자유, 획의 분출’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전통 족자의 수직 화면에 비정형 추상의 감각과 역동적인 필획을 담아내며 한국화의 전통성과 현대 추상이 만나는 지점을 조명한다.

전시는 전통 서화의 보관·전시 형식인 족자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업들을 선보인다.

먹빛은 붓끝의 움직임에 따라 응축되거나 번져가고, 화면 곳곳에 더해진 원색의 색채는 수묵과 어우러지며 독특한 긴장감을 만들어낸다. 비백과 불균일한 선들은 전통 산수화의 형식을 넘어선 새로운 조형 언어를 보여준다.

특히 이번 전시는 전통과 현대, 질서와 자유, 정신성과 육체성이 교차하는 지점을 탐색하는 회화



‘호랑이의 아침-기운생동’

적 실험으로 읽힌다. 김 화백이 오랜 화업 동안 축적해 온 다양한 조형적 탐구가 족자 연작 안에 응축돼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장하경 수하갤러리 대표 표는 “지암 화백의 작품은 먹의 깊은 울림과 절제된 여백 속에서 자연과 인간, 시간과 기억의 흔적을 담아낸다”며 “전통 수묵의 아름다움과 현대적 조형 감각이 만나는 이번 전시를 통해 한국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느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묘 이장 · 개장

가족묘 조성 / 개장 / 묘지이장 / 유골함 / 자연장

맞춤형 묘지이장 전문 ☎ 문의) 062-464-3466